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시범공연 지원 심사평

- 일시 : 2015. 1. 29(금) 10:00~12: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원미솔, 이유리, 장유정, 조광화, 최종윤 (가나다 순)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시범공연 지원 공모는 창작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품 제작의 중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작품은 시범공연의 기회를 갖는다. 시범공연 실연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작품은 공연 제작지원과 대관지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시범공연 지원 공모에는 일반 작품과 청소년 작품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총 53편의 신작이 접수되었다. 그 중 2014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6편 <컷더로프>, <푸른연꽃>, <모스크바의 종>, <로미오 혹은 줄리엣>, <따뜻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신과 함께 가라>와 더불어 신작 8편 <에어포트베이비>, <헬로우 미스터킴>, <워 로드>, <안녕!유에프오>, <망원동 브라더스>, <맘2맘>, <웰 다잉>, <빨간 기타>을 시범공연 제작지원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총 14편의 신작이 오는 5월 시범공연 실연심사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접수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참신한 소재와 발상이 돋보였으나, 이를 뮤지컬 문법에 맞게 대본과 음악을 구성하여 완성하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점을 시범공연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지원사업의 목표로, 작품의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토론하였다. 청소년 뮤지컬 작품 역시 완성도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주는 작품의 탄생을 기대하였기에 더욱이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

지원신청서,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필수 서류 미제출 작품, 공연화 된 작품, 원작 저작권 미취득 작품, 타 지원사업 중복 선정 작품 등은 지원 결격 사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타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에어포트 베이비>와 <안녕! 유에프오>는 기초 단계에 대한 지원을 받은 만큼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극과 음악이 잘 어우러져 공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시범공연 지원을 통해 완성도를 더 높여 무대화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헬로우 미스터킹>, <워 로드>, <망원동브라더스>, <웰다잉>, <빨간기타>는 음악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반면 드라마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다. 드라마에 대해 치밀한 수정, 음악과의 조화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진정한 뮤지컬 작품으로서의 짜임새를 고루 갖춘 작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일반 작품에 비해 청소년 작품의 지원이 적었고 뮤지컬 장르에 접합하고 완성도를 갖춘 작품이 부족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맘2맘>을 청소년 작품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청소년 미성년자 미혼모 문제를 신선하게 다루었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성 중심의 작품이 많은 뮤지컬계에 다양한 색깔을 더할 수 있음에 의미를 두었다.

지난해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신작 10편이 최근 연이어 우수한 성적의 초연 데뷔 무대를 치루며, 해외 라이선스 작품 못지않은 작품성으로 ‘창작뮤지컬의 역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선정작 14편 모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은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알찬 씨앗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작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시범공연 지원 심의위원 일동